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스승 신국원에게 묻다!



주일학교 교사 니고데모 씨.
 오늘도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섬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신년이 되어 새로운 학생들도 만나고 의욕도 충만해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다.
 기독교세계관학교 멘토, 신국원 교수에게 묻다!

☉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교수, 세계관아카데미 소장)

Q1. 교수님, 주일학교 교사에게 세계관이 필요한가요?

영혼의 안경

미국의 ABS 텔레비전에서 1978년부터 30년 넘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 중인 “20/20”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 뉴스가 일간 신문이라면 이 프로는 『타임』이나 『뉴스위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최고의 시력을 뜻하는 2.0/2.0 비전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는 제목처럼 뉴스 해설로 세상사를 밝히 보여주겠다는 제작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단편적으로 접하는 보도만으로는 사건의 실상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는 만큼 큼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도 해설이 좋으면 훨씬 더 재미 있습니다. 경기의 묘미를 즐길 수 있는 눈을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영적 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타락으로 어두워진 세계에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밝아져야 삶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은 얼마일까요? 전과 망원경으로 머나먼 우주를 발견하는가 하면 텔레비전을 통해 지구 반대편 사건을 안방에서 보고 들지만, 우리의 시선은 코앞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눈이 어두워진 탓입니다. 눈만 크게 뜬다고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부릅떠도 보이는 것은 세상뿐입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영혼의 안경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적 시력: 20/20 비전

한국 사람은 서구인보다 눈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시력의 1.5는 미국에서 최고로 치는 2.0보다 좋다고 합니다. 영혼의 안목에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목이 근시이면 현실에 매여 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늘 허황된 꿈만 꾸는 영적 원시안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영적 시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오늘을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력이 1.5 정도라고 하겠습니까. 로마를 넘어 스페인을 선교지로 바라보았던 바울의 비전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겠습니까.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시력도 결코 아브라함이나 바울보다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영적 안목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

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본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전도서 기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전 3:11) 가치관이 혼돈된 오늘의 세상살이에서 바른 분별력은 성도의 필수적 덕목입니다. 성경은 거룩한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인생의 미로 속에서는 영원을 보는 눈이 절실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세태를 분별하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지요?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은 바로 성경의 비전입니다.”



Q2. 성경의 비전? 비전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영적 안목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주어집니다. 비전과 믿음의 밀접한 관계성은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세상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 “보는 것을 믿는 것” (Seeing is believing)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봅니다. 아브라함이 보는 것을 믿었더라면 어찌했겠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도, 자손도 받지 못했습니다(히 11:13). 그러나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방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원망하고 한탄으로 살았던 것은 아닙

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의 실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상(實狀)을 보는 시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실상을 뜻하는 헬라어 ‘휴포스타시스’는 사물과 사태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실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는 이 사과와 저 배를 볼 수 있을 뿐 그 본질을 보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상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의 기우려 숙고하는 정신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개념과 정의(定義)는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정신적 파악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의 능력은 믿음에 기초합니다. 인간의 의식은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눈에는 실상을 보게 합니다.”

성경과 비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비전은 눈으로만 보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과 그를 통해 약속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통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늘 사다리 꿈을 통해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늘 보좌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동생이 전하는 고향 소식을 들으며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마음에 떠올랐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근엄하면서도 사랑 가득한 말씀을 들으며 그의 눈을 덮었던 바리새파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요한 사도는 밤모 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비전을 가진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갔고, 야곱은 삶의 태도가 철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선지자가 되었고 느헤미야는 멸망한 나라를 회복하려는 비전가(visionary)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요한은 땅끝과 세상 끝 비전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비전에는 환상과 꿈 같은 시각적 이미지뿐 아니라 말씀을 믿어 품게 되는 심상도 중요합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정신적 이미지”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비전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 본 내용은 <총회교육부의 교사용 교재>로 함께 제공됩니다.
<월드뷰>를 통해 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신국원 교수와 총회교육부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국원 총신대 신학과 철학교수로 본 단체 실행위원이자 세계관아카데미 소장이다. 저서로는 『변혁과 살름의 대중문화론』, 『신국원의 문화 이야기』, 『포스트모더니즘』, 『니고데모의 안경』 (이상 IP) 등이 있다.